

HRI 체어퍼슨노트

CHAIRPERSON NOTE

2012.04.23 (통권396호)



경제이슈

IMF, 세계 경제성장률 3.5%로 상향조정

취약가계 부실 위험 증대

경영노트

두 마리의 토끼: 만족과 열정

사회 트렌드

그린텔레전스

한국 1인 GDP 2050년엔 日 추월

저널 브리프

사외이사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방안

洗心錄

외국어를 공부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

□ IMF, 세계 경제성장률 3.5%로 상향조정

- IMF는 17일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해서 2012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1월 전망 대비 0.2%p 상승한 3.5%로 상향조정
 - 선진국 전망 :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월 전망 대비 0.3%p 상향되어 2.1%로 조정되고, 유로존도 0.2%p 상향된 -0.3%로 전망
 - 신흥국 전망 : 중국이 8.2%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등 신흥국 경제성장률은 1월 전망 대비 0.2%p 상승한 5.7%로 전망
 - 하방 리스크 : 유로존 위기 지속, 디레버리징¹⁾의 급격한 진행 우려 및 중동지역 불안심화로 인한 유가 충격 등의 위험요인 존재
- 유로존의 회복, 미국 경기지표 개선 및 중국의 견조한 성장으로 세계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겠지만, 하방리스크에 대한 정책대응이 필요

□ 취약가계 부실 위험 증대

-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며 저소득층과 고연령층 등 취약가계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증대
 - 가계부채 :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2011년에 전년대비 7.8% 증가한 912.9조 원을 기록
 - 저소득층 가계부채 :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며 향후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될 경우 채무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가계를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이 높아질 가능성
 - 고연령층 가계부채 : 소득창출능력이 취약한 고연령층의 가계대출이 급증하며 주택가격 하락 등 충격 발생시 부채상환에 큰 어려움이 예상
- 저소득층과 고연령층 등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대출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등 소득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1)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란 경제주체들이 빚을 줄이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수요기반이 무너져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는 현상을 뜻함

□ 두 마리의 토끼 : 만족과 열정²⁾

- 사람들이 목표를 정하고 노력하는 이유는 과정으로부터의 동기와 결과로부터의 동기로 구분 가능
 - (과정 동기) 목표의 추구 그 자체를 즐기는 것으로 학생이 정말 그 과목이 재미있고 즐거워서 공부를 하는 경우
 - (결과 동기) 공부를 통해 좋은 성적이나 일자리 등의 성과를 내고 그것을 달성하는 데서 오는 성취감을 맛보기 위한 경우
-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와 더 높은 목표를 향한 열정은 함께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인사관리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
 - 과정 동기와 결과 동기를 합한 수준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직무만족도와 열정 모두 높을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과정과 결과 동기를 합한 수준이 동일한 경우를 비교하면 현재 목표에 대한 만족도와 더 높은 목표를 향한 열정사이에는 상충관계가 존재
- 현재 성과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따라 만족도 및 열정의 수준이 결정
 - 목표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때 지금까지 성취한 일을 강조하는가, 앞으로 성취해야 할 일을 강조하는가의 시각차가 만족과 열정의 선택을 결정
 - 성과에 대한 관점을 상황에 따라 잘 조절할 수 있다면 행복해야 할 때 행복하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도전해야 할 때 도전할 수 있는 삶이 가능

< 만족과 열정의 상충관계 사례 >

	내 용
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즈니악은 잡스보다 뛰어난 엔지니어였으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찬 사람이었지만 이제까지 이뤄온 일들에 집중 · 스티브 워즈니악은 상류사회로 올라가려는 욕심이나 기업의 리더가 된다는 것을 상상하지 않고 현실에 만족
열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티브 잡스는 계속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열정을 바탕으로 아직 하지 못한 남은 일들에 집중 ·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항상 현재의 부족함을 찾아서 보다 완벽한 것을 창조하고자 노력함

2) 본 자료는 동아비즈니스리뷰의 '목표의 사다리: 만족할 것인가 더 올라갈 것인가 (2012.03.15)'를 요약 정리함

□ 그린텔리전스³⁾

- 4월 24일 열리는 세계 최대 산업기술 박람회, 하노버 메세의 대주제는 ‘그린텔리전스’에 주목해 글로벌 위기를 기회로 바꿔라’임
 - 그린텔리전스(Greentelligence)란 Green과 Intelligence의 합성어
 - 이번 박람회에서는 지멘스, 폭스바겐 등 65개 국 5000여 기업이 참여해 △산업자동화 △에너지·발전·로봇 등 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선보임
- 올해는 행사 주제에 맞춰 ‘산업환경기술전이 새로 열림’
 - 여기에선 기업들의 ‘그린 생산 시스템’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최첨단 솔루션과 공정기술 등이 공개
 - ‘메트로폴리탄 솔루션’도 주목되는데, 여기에선 기후 변화, 상하수도, 수송, 기후 보호 등과 관련된 최첨단 기술이 전시됨

□ 한국 1인 GDP 2050년엔 日 추월⁴⁾

- 오는 2050년 무렵에는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본 게이단렌 산하 연구기관에서 나옴
 - 21세기정책연구소는 2050년까지 일본과 세계 50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장기전망을 담은 ‘글로벌 재팬 - 2050년 시뮬레이션과 종합전략’이란 보고서를 발표
 - 저출산 고령화의 덫에 빠진 일본은 앞으로 생산성이 선진국 평균 수준으로 회복되더라도 2030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률의 늪에서 헤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면 사실상 선진국 대열에서 낙오될 것으로 전망
 - 1인당 GDP도 한국에 추월당할 것으로 전망, 주요국 1인당 GDP 순위는 일본은 2010년 10위에서 18위로 떨어지며 한국은 24위에서 14위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봄
 - 일본의 GDP 규모는 미국과 중국의 약 6분의 1 수준에 그치며 현재 세계 3위에서 4위로 밀려나게 됨

3) “미래성장동력은 그린텔리전스”(매경, 2012.4.23)

4) “한국 1인 GDP 2050년 日 추월”(서울경제, 2012.4.17)

□ 사외이사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방안⁵⁾

■ 사외이사 선발에 있어 독립성 및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소개함

- ① 사외이사들에 의한 선발 : 사외이사들이 자체적으로 전권을 가지고 선임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제도
 -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사기업 CEO가 이사 선발의 전권을 사외이사들에게 주지 않으려할 것이라는 점에서 현실 가능성이 낮음
- ② 내부 직원들이 추천한 후보의 선발 : CEO나 오너가 아닌 직원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사외이사로 선발하는 방식
 -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지만 직원들이 전문성보다는 대중적 인기가 높은 사람을 사외이사로 추천할 가능성이 높음
- ③ 전문성 강화 시스템의 구축 : 후보들의 관련 경력 및 학력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이사 선임 후 회사 경영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제공받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
 - 사전·사후적 전문성을 개선할 수 있으나 경영 정보 접근에 있어서 경영기밀 유출 등의 우려로 인해 회사의 협조가 제한적일 가능성 높음
- ④ 개별 공시 제도의 도입 : 사외이사 추천인, 선발 근거, 활동내역 및 보수 등을 철저히 공시하여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중립적이지 못한 사외이사를 가려내는 방법
 - 사외이사 보수를 사람 개별로 공시하는 미국·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평균 보수를 공시하게 되어있어 개별공시를 의무화하는 법 제정이 요구됨
- ⑤ 사외이사 인력뱅크 제도의 활용 : 사외이사 후보들의 주요 경력과 전문성 등이 기록된 사외이사 인력뱅크를 활용하는 방법
 - 독립성과 전문성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활용도가 낮음

5) '사외이사제 제대로 정착하려면'(매경이코노미, 2012.04.11) 참조

□ 외국어를 공부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

국가와 국가를 나누는 경계인 국경의 의미가 나날이 퇴색되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 외국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벌써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와 다른 말을 사용하는 사람과 마주칠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고 이들과 소통해야 하는 상황도 이에 발맞추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외국어를 굳이 배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기술 발전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한국어 표현을 적절한 외국어로 바꿔 음성화시켜주는 어플리케이션이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이론적으로 약간의 시차를 감내할 용의가 있다면 어느 외국인과도 자유롭게 대화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겠다. 곧, 우리는 외국어의 필요성이 늘어남과 동시에 줄어드는 두 상반적인 경향이 동시에 나타나는 일종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 성과를 보면 외국어를 배워야 할 이유를 실용성이 아닌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외국어를 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더 똑똑해질지 모른다는 것이다. 모국어 이외에 다른 언어를 하게 되면 언어와 관계없는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노년에 적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치매 또한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동안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두뇌 안에서 한 언어가 다른 언어를 간섭하는 일이 발생해 어린이들의 학습 능력과 지능 발달을 방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는 실제로도 입증되기도 했다. 그러나 뒤따른 연구들이 이런 간섭의 폐해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잇달아 밝히면서 이제는 외국어 습득의 중요성에 대해 학문적인 통일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들이 제시한 모국어만을 사용하는 사람과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주변 환경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스페인의 학자들은 독일어와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는 독일계 이탈리아인과

이탈리아어만을 사용하는 이탈리아인을 비교했는데 전자가 후자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두뇌를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09년에 발표된 이탈리아 학자들의 연구는 7개월 된 아기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이들은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기들과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키워지는 아기들을 비교했는데 전자가 후자보다 상황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더 높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외국어의 위력은 노년기에도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에서 행해진 연구는 44명의 스페인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다. 여기서 연구자들은 이 두 가지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정도가 높은 것과 비례해서 치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찾아냈다.

한국인들에게 있어 외국어와의 만남이 즐거웠던 경우보다 고통스러웠던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데 아마도 거의 대부분이 동의할 것이다. 그것은 그 외국어가 바로 영어였고 불행히도 영어는 한국어와 모든 것이 반대인 언어였기 때문이다. 동시에 거의 모든 중요한 시험에서 이 너무도 낮은 언어가 당락을 가름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당연히 일종의 공포로 다가왔을 것이다. 따라서 뜬금없는 제기된 외국어 습득의 중요성에 대해 본능적으로 반감을 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연구자들이 ‘영어’가 아닌 ‘외국어’를 강조했다는 것이다. 곧, 우리말이 아니면 되는 것이며 이에겐 다행히도 언어 구조가 같은 일본어와 한자 문명권의 중국어가 들어있다. 곧, 일본어나 중국어만 공부해도 위에서 말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이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할 수 있다.

欲致魚者先通水 (욕치어자선통수)

欲來(致)鳥者先樹木 (욕래조자선태목)

물고기가 이르게 하고 싶거든 먼저 물길을 트고,
새가 오게 하고 싶거든 먼저 나무를 심어라.

- 회남자(淮南子) 설산훈(說山訓)